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국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앞두고있는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있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자면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강해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수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공화국의 자랑찬 로정은 력사의 광풍에도 끄떡없이 전진비약하는 무진막강한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그 나날 공화국은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왔으며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도 비상히 높이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에서 세계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강국이다.

공화국의 위력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여온 공화국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단결의 위력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화폭들을 끝없이 펼치고있다.

시련과 난관은 겹쌓였지만 나라의 정치적안정이 확고히 보장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였기때문이다.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억척의 성새로 다져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인민이 자나깨나 령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이 일심단결이야말로 공화국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조선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공화국은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철벽의 성새이다.

국력에서 군사력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력한 군력우에 평화도, 국가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

막강한 군사적힘은 공화국의 운명수호를 위한 위력한 보검이다. 공화국이 국가방위를 철벽으로 다졌기에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마치소리가 끊임없이 세차게 울려퍼질수 있었으며 인민이 수십년세월 전쟁을 모르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올수 있었다. 회세의 령장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무적강군이 있고 최강의 전쟁억제력이 있기에 공화국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불패의 요새로 위용떨치고있다.

공화국은 또한 자력갱생을 원동력으로 하여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천만대중의 강한 정신력과 높은 과학기술력은 공화국의 긍지이며 힘이다.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다.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는 자력으로 모든것을 개척하고 억세게 다져온 자랑스러운 발전로정이다.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중대시켜온 자력갱생의 힘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속에서도 경제건설에서 기적과 비약을 안아오게 한 원동력이였다.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 높은 민족적자존심은 남들이 못한것도 보란듯이 해나가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자력갱생을 전진방식, 창조방식으로 하였기에 공화국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속에 자력자강의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강력한 국가방위력의 담보밑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이다.

리 라 연

밝고 아름다우면서도 뜻이 깊은 국장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있는 공식적표장이다.

국장은 직관성이 강한 그림형상으로서 해당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적지향과 념원, 그 나라의 발전방향과 전망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국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국장처럼 밝고 아름다우며 깊은 뜻을 담고있는 국장은 없다.

여기에는 공화국의 존엄과 강용한 기상, 불패의 위력과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다.

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민족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장은 우선 백두산과 붉은 오각별을 통하여 공화국이 계승하고있는 빛나는 전통과 민족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상징하고있다.

백두산은 민족의 존엄과 기상, 넋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국장은 백두산을 통하여 공화국이 항일의 전통, 백두의 전통을 계승하고있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려는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밝은 빛을 뿌리는 오각별에 력력히 새겨져있다.

국장은 또한 붉은 띠와 그우에 새겨진 국호를 통하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정치사상적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은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며 륭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이다.

붉은 띠를 테두리로 하여 국장을 타원형으로 한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영원성을 표시하고있다.

붉은 띠 아래부분의 중심에 새겨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에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국가사업에 참가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공화국의 성격과 사명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국장은 또한 수력발전소와 벼이삭을 통하여 자주적이고 부강번영하는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물질적기초이다.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떠나 국가의 부강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국장의 한가운데 새겨진 수력발전소는 강력한 중공업에 의거하고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상징하고있는것으로서 날로 륭성번영할 공화국의 찬란한 앞날을 확신하게 해주고있다.

국장에 새겨진 벼이삭도 지난날 봉건의 질곡속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인민들이 토지개혁으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된 당시의 현실은 물론 앞으로 현대적으로 발전하게 될 농업의 밝은 전망을 상징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국장은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인양 더 밝은 빛을 뿌리며 존엄높고 강대한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튼튼한 자립경제토대, 진정한 인민의 세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립, 자력으로 광명한 미래에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현실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은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이역땅에 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해가는 조국의 국력과 발전잠재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류례없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질좋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는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은 참으로 무진막강하다.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이런 자강력의 강자들이 있기에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단장은 《세계를 앞서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안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과 기백은 정말 대단하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며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있지만 우리 조국은 자립, 자력으로 엄혹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인민들은 반드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는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릉라곱등어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며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 공장에는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일터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조선방문을 통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매우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히 높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병원들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

웰남사회과학원대표단 단장은 몇해전에 조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에 비해 정말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의 모습은 경탄을 자아낸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은 조선에 대한 외곡된 선전을 하고있다. 누구든 평양에 와보면 그것이 완전한 날조임을 알게 될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알아야 한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대표단 단장은 사람들 모두가 희망과 소질에 따라 배우고 일하며 근심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어길수 없는 국책으로 하고있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극악한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계속 실시되고있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참다운 존엄을 빛내여가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사회주의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세상, 인민의 나라이다.》

본사기자 김 철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공화국기와 어제날의 동포청년

70여년의 장구한 세월 오각별 빛나는 람홍색기발과 운명을 함께 해온 인민들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시각 나붓기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는 수많은 사람들가운데는 정훈상(76살)선생도 있다.

일흔고개를 훨씬 넘어선 정훈상선생이 한생토록 심장속에 안고 사는 공화국기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남다른 인생행로를 걸어온 정훈상선생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훈상사건》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들처럼 빛났고 기자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76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가 바로 1969년말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훈상사건》의 주인공이다.

《벌써 5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때의 일이 어제날처럼 생생합니다.》

1970년 12월 29일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환영진을 친 순안비행장(당시)으로는 한대의 려객기가 착륙하였다. 비행기에서는 공화국기발을 손에 든 한 청년이 내리였다. 그처럼 갈망하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기쁨에 넘쳐 열정적으로 공화국기를 흔들고 또 흔들던 동포청년, 그가 바로 당시 27살의 정훈상청년이였다.

▶ 어떻게 되여 고향을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길 결단을 내렸는지 알고싶다.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여난 나의 어린시절은 온갖 박해와 탄압속에 훌러간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였습니다.》

나어린 정훈상과 형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통일투쟁의 길에 나섰던 그의 아버지(정해진)와 어머니(전례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부모들이 북행길을 택하였다고 하여 그들은 《빨갱이자식》으로 취급받으며 고통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늘 고향마을 뒤산에 올라 눈물속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북녘하늘을 바라보군 하였다.

남조선에서 1960년 4.19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당시 광주상업고등학교 학생이였던 그는 리승만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총에 맞고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독재권력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시위대가 파출소를 점거하자 제일먼저 달려가 리승만의 사진을 떼내여 불태워버린 정훈상선생이였다. 리승만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남조선의 사회정치현실에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잔인하고 포악한 박정희군사파쇼독재 《정권》이 들어섰던것이다.

학비를 물지 못하여 끝내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친척의 도움으로 당시 목포에 있는 해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였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2등항해사자격증을 받게 되여있었다. 공부도 제일 잘했고 학교 롱구주장을 하며 교원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건만 그는 《빨갱이자식》이라고 하여 자격증을 받지 못하였다. 북녘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속지향은 더욱 강렬해지였다.

(북으로 가자!)

마침내 공화국의 품에 안길 결심을 내리였다.

1969년 8월 공화국북반부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건만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당하게 되였다. 하여 그는 교베구치소의 차디찬 철창속에 갇히우는 몸이 되였다.

국제적십자사에 알려 부모님들이 계시는 공화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의 호소를 남조선의 독재 《정권》과 공모결탁한 일본반동들은 외면하였다.

《이제 더는 공화국으로 갈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절망속에 날과 달을 보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를 찾아 4명의 낯모를 사람들이 면회를 왔다. 그들중 한사람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효고현본부 사회경제부장이였고 다른 세사람은 정훈상선생을 지켜주기 위해 온 일본의 민주변호사들이였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땅에서 누가 나를 지켜준단말인가?)

그런 그에게 총련일군은 반드시 공화국의 품으로 갈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정훈상선생은 감방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공화국기를 소중히 품고 그이의 로작을 학습하며 통일신념을 더욱 가다듬었다.

구치소밖에서는 정훈상청년을 구원하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투쟁이 매일같이 벌어졌다.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각계층 사람들도 정훈상청년을 지지하여 10만명서명운동을 벌리였다.

1960년대말 《정훈상사건》은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공화국에서는 평범한 동포청년의 인권을 옹호하여 외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각계층 단체들의 성명들이 련이어 발표되였다. 외무성 성명은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및 법률적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의 관계문제 또는 주요한 국제적사건들에 대한 견해와 립장을 표명하는 무게있는 국가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외무성 성명이 평범한 한 청년을 위하여 발표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훈상청년이 공화국으로 오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억류되여 옥중고초를 겪고있다는것을 보고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본반동들이 그를 1년 넘어서까지 억류하며 온갖 박해를 가하고있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적대행위라고, 그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정훈상청년은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으며 극적인 인생전환을 하게 되였다.

공화국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정훈상선생의 집에는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공화국기발이 있다. 정훈상선생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비행기에서 내릴 때 손에 들고 흔들었던 공화국기발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이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품은 때로부터 5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행복의 금방석에 앉아 꿈같은 나날을 보내여왔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속에 그는 인민경제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대학시절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한적 있었던 그는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고 의료일군들이 친혈육의 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주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살던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현실이였던것이다.

《사람들은 저의 남편이 일흔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청춘의 활력에 넘쳐있는것을 보고 여러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고 하면 믿기 힘들어합니다.》

정훈상선생이 인민경제대학을 다닐 때 인연을 맺었다는 안해 신혜숙녀성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정훈상선생은 어릴적에 나무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친데다가 고등학교시절에는 중병에 걸려 혈육들까지도 살 가망이 없다고 여겼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던것이다.

알고보니 그와 일생을 함께 하고있는 신혜숙녀성은 처녀시절 만수대예술단의 재능있는 무용배우였다. 그가 출연한 무용 《조국의 진달래》, 《눈이 내린다》, 《사과풍년》, 《키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화국의 유명한 무용작품들이다.

신혜숙녀성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정훈상선생은 오래동안 인민정권기관에서 일하였다. 정훈상선생의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들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졸업하고 중앙기관의 어엿한 일군들로 자라났다.

▶ 가정에 조국통일상상장이 3개나 있는데 쉽지 않은 애국자집안이라고 본다.

《나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촌형이 받은 조국통일상 상장들입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온 정훈상선생의 아버지 정해진선생은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겨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애국자였다. 큰아버지인 정해룡선생도 해방후 려운형선생과 함께 통일애국투쟁에 나선 애국지사였으며 사촌형인 정춘상선생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싸웠다.

《그들도 람홍색공화국기를 가슴에 안고 통일애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화국기발은 우리 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더없이 소중한 기폭으로 간직되여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훈상선생은 꿈결에도 그리운 공화국의 품에 안겨 값높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한껏 누리고있는 자기를 두고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군 한다며 환하게 웃었다.

판이한 두 제도, 두 현실을 살아오면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은혜로운 조국의 귀중함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는 정훈상선생, 하기에 그는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주는 어머니조국의 정다운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공화국기발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산다.

본사기자 김 춘 경